

도내 소비자물가 안정 속 신선식품 가격 상승

전북 8월 소비자물가 동향... 전월 대비 0.7% ·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 가계 부담 높아져

전북특별자치도내 경제가 미묘한 물가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2025년 8월, 전북자치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6.26(2020년=100)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0.1% 소폭 하락하는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6% 상승해, 여전히 점진적이지만 꾸준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통계는 전북 지역 가계의 체감 물가와 경제적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은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다. 상품 가격은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가계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서비스 가격은 전월 대비 1.1%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가격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필수품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0.5%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하며 여전히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선식품은 계절적 요인과 기상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기록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5.0%,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하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눈에 띄게 높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선어개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고, 신선채소는 전월 대비 무려 16.8% 급등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반면 신선과실은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해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신선채소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장마와 폭염 등 계절적 기상 변화를 꼽으며, 공급 부족과 생산 비용 증가가 가격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의 지출 목적별 물가 동향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월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9%, 교통 0.7%,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4%, 오락·문화 0.3%, 음식·숙박 0.2% 각각 상승했으며, 반대로 통신 부문은 -13.9%로 큰 폭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5.1%, 기타상품·서비스가 4.8%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고, 통신(-13.8%)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비 부담과 소비패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체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전월 대비 3.3%,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하며 돼지고기, 쌀, 신선채소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가계 부담을 증가시켰다. 공업제품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가격 변동을 보였다. 서비스는 전월 대비 1.1%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하며, 공공서비스의 가격은 -5.2%로 큰 폭 하락해 소비자의 체감 물가에 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은 '전북 농특산물 판매전'을 농협 동탄유통센터에서 14일까지 2주간 개최한다

수도권서 전북 농특산물 판매전

전북농협, 김제 포도 · 군산 찜뽕라면 등 다양하게 선보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북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 농특산물 판매전'을 농협 동탄유통센터에서 14일까지 2주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제 백구면에 생산된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포도와 샤인머스켓, 갯 수확한 김제 햇고구마 등 지역 대표 농산물을 비롯해 군산 옥토진미(신동진) 쌀, 군산찰보리로 만든 군산찜뽕라면 등이 선보인다. 군산찜뽕라면은 출시 이후 400만

개 이상 판매된 인기 상품으로, 전북 농특산물의 맛과 품질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농협은 전국 범농협이 전개하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에도 동참했다. 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농업의 중요성과 농촌 가치를 알리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이정환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북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JB STAY ON 통장 체크카드 신규 이벤트 진행

전북은행이 생활비 관리에 특화된 JB STAY ON 통장과 연결 체크카드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11월 2일까지 약 두 달간 '일상을 충전하다, JB STAY ON 통장 연결 체크카드 신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통장의 자동·직접 충전 기능을 널리 알리고, 체크카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감성충전'·'허기충전'·'지갑충전'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해 고객이 생활 속에서 충전 기능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감성충전'은 오는 14일까지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하고 매주 10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매주 2명을 추첨해 JB카드콘서트 티켓(1인 2매)을 증정한다. '허기충전'은 이벤트 기간 내 매주 10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 가운데 매주 5명(총 45명)을 추첨해 배달의민족 1만 원 쿠폰을 지급한다. '지갑충전'은 누적 사용금액 90만 원 이상 고객 중 1명을 선정해 10만 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전북은행은 이번 이벤트와 함께 통장·체크카드 동시가입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으며, 체크카드 결제 시 잔액이 부족할 경우 실시간 충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금융 편의성을 높였다.

탄소복합재 분야 기술 교류 · 글로벌 협력 강화 모색

'한·독 기술 · 혁신 파트너십 데이' 개최

한국과 독일이 탄소복합재 기술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독일의 세계 최대 복합재 네트워크 Composites United(이하 C.U.)의 클러스터 MAI Carbon과 함께 지난 8일 독일 뮌헨에서 '한·독 기술 및 혁신 파트너십 데이(Korea-Germany Tech & Innovation Partnership Day)'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뮌헨 국제 모빌리티쇼(IAA Mobility 2025)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양국 간 탄소복합재 분야 기술 교류와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탄소

복합재 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에서는 한국과 독일 기업들의 기술 발표가 이어졌고, 이어진 1:1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이 논의됐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박종수 회장과 함께 한국카본, 폴리머월드, 효성첨단소재 독일 법인이 참여했으며, 독일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섬유연구소(ITA), Fib click GmbH, Composit GmbH 등이 기술 혁신 사례와 시장 동향을 공유했다. 독일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찍부터 탄소복합재와 경량소재 기술에 투자를 왔으며, 특히 탄소섬유 재활용과 경량복합소재 기술 개발서 세계적인



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 역시 독일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MAI Carbon과 △탄소복합재 기술 발전 협력 체계 구축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정기적 대표단 교류 △세계 탄소복합재 산업 동향 정보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상근 기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획득

바이오진흥원, '인권을 존중하는 공공기관' 타이틀 재입증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인권을 존중하는 공공기관'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난해 첫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갱신을 획득한 것이다. 바이오진흥원은 2024년 최초 인증 취득 이후 인권경영 체계를 더욱 촘촘히 다져왔다. 인권경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구성원의 참여 폭을 넓히고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년 연속 '인권경영 우수기관'이라는 영예를 거머쥐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토대로 기관이 인권경영 방침과 목표를 수립,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여된다. 이번 갱신 심사에서는 특히 조직의 인권 존중 문화 성숙도와 인권침해 예방 체계 운영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바이오진흥원은 그동안 △전 임직원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 △내부 고충·신고 채널 상시 운영 △정기적인 인권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조직 곳곳에 확산시켜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은미 원장은 "이번 인증 갱신은 바이오진흥원이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영 활동 전반에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대외적으로 확인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과 연계해 도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모범적 공공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예방적 인권행정 지원체계 강화', '공공기관 인권경영 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인권보장 제도 마련', '도민 참여형 인권존중 문화 확산' 등이 그 핵심이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효성중공업, 송변전 특수설비 안전 협력 맞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효성중공업이 손잡고 송·변전 특수설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효성중공업 본사에서 효성중공업(주)(대표이사 우태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고압 직류송전(HVDC)과 유연송전설비 등 특수 송·변전 설비의 안전 관리 역할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국



가 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해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

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송·변전 특수설비 검사 기술 및 검사 기준 선진화 △설비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직류·유연송전 설비 관련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 협의 △신기술 교류와 안전관리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6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